

전기차부터 로보택시·드론까지… ‘미래 모빌리티’ 총출동

르포

‘퓨처 모빌리티 워크’ 개막

전기차·자율주행·무인이동체 통합 친환경차·충전 인프라 기술 공개 자율주행 트럭·로보택시 경쟁 박차 드론·방산로봇 듀얼유즈 기술 전시 AI 모빌리티 제도·산업 기반 논의

친환경 자동차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드론과 로봇까지 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주최한 이번 ‘2026 퓨처 모빌리티 워크’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해 사흘간 열린다. 올해 행사는 전기차 전문 전시회인 ‘EV트렌드코리아 2026’과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6)’, 그리고 드론과 방산 로봇 기술을 아우르는 ‘2026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UWC X CIM EX 2026)’를 통합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6을 찾은 시민들이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로 꾸러졌다.

EV트렌드코리아 현장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선보인 친환경차가 눈길을 끌었다. 기아는 패밀리 전기 SUV ‘EV5’와 소형 SUV ‘EV3’, PBV(목적기반차량) 전용 모델인 ‘PV5 패신저’를 선보였다.

KG모빌리티는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무쏘EV를 출품해 실용성을 앞세웠다. 볼보 플래그십 전기 SUV ‘EX90’과 전기 세단 ‘ES90’, BMW의 전기 SAV ‘더 뉴 iX

3’ 등을 전시했다. 특히 BYD 전시장은 가솔린 연료 완충 시 총 주행가능거리가 1000km를 넘어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SUV ‘썬라이언 6 DM-i’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EV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생 체험관’도 눈길을 끈다. 홈, 오피스, 캠프, 시네마 등 8개 테마를 통해 주거와 업무, 여가로 확장되는 전기차 활용 방식을 소개한다.

옆 전시장공간에는 전기차 자체보다 충전 인프라와 자율주행 기술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A홀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차와 함께 충전 편의성과 전력망 연계 기술이, B홀에서는 자율주행 트럭과 로보택시가 관람객을 맞았다.

그리드위즈는 7kW급 스마트 충전기를 선보였다. 향후 V2G에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계량기를 적용했으며, 회사 관계자는 국내 상용화를 위해 법제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이용자 김대희씨(49)는 “이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며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 충전 비용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홀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경쟁이 펼쳐졌다. 마스오토는 현대 엑시언트 자율주행 트럭과 관계 시스템을 전시했다. 회사는 장거리 화물 운송에서 운전자 부족이 이어지면서 자율주행 트럭의 사업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WM은 도심형 로보택시를 선보였다. 회사 측은 상용화 과정의 주요 과제로 시

범운행지구 등 규제를 꼽았다. SWM은 2028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완료한 뒤 테스트와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AME 컨퍼런스에서는 마르코 파보네 엔비디아 AI 수석 디렉터가 ‘Physical AI를 위한 추론 모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국내외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도와 산업 기반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 열린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 현장에는 민간 첨단기술을 군과 공공분야로 확장하는 방산·듀얼유즈(민군겸용) 기술이 전시됐다. 88개 기업이 군사용 드론, 차세대 비행 플랫폼, 대드론 방호체계(인티드론), 국방 AI 지휘통제 시스템, 스마트 군수 물류 로봇 등을 선보였다.

/양성운·이승혁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웨이 코디, ‘고소득 세일즈 전문가’ 부상

전체 평균 월수입 321만원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5배 ↑
점검·판매 병행해 소득 상승

코웨이의 방문점검판매원인 ‘코디(CODY)’가 고소득 세일즈 전문가로 확실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설치 제품 점검 뿐만 아니라 정수기, 공기정정기 등을 많이 판매한 상위 코디의 경우 월 수입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프리랜서이면서도 정규직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코디의 평균 수입도 올해 들어 321만원을 기록하는 등 점점 높아지고 있다.

25일 코웨이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디는 1만2000여 명에 달한다. 코디는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남성도 일부 활동하고 있다. 코웨이 코디는 2~6개월마다 제품 사용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해 제품 관리, 필터 교체 등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는 영업활동을



코웨이 코디 모델.

펼치는 등 세일즈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코디의 소득은 ‘제품 점검 수수료’와 제품 판매 후 받는 ‘세일즈 수수료’로 구성돼 있다.

코웨이가 집계한 전체 코디의 평균 소득(수수료)은 지난 2023년 당시 271만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며 올해엔 321만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수료만 1000만원 이상을 가져간 코디는 2023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코웨이가 지난달 20일 개최한 ‘코디 스

타 어워즈’ 수상자들의 소득은 더욱 눈에 띈다. 제품을 많이 판매해 ‘세일즈 스타’에 오른 코디들의 상반기 월 평균 수수료는 약 1100만원, 관리 고객 대비 판매를 가장 많이 한 ‘생산율 스타’ 코디의 수수료는 약 87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수수료는 곧 코디들의 수입으로, 웬만한 대기업 간부급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생산율 스타 1위에 선정된 박윤하 코디(43세)의 경우 올해 들어 매달 평균 62대의 제품을 판매하며 월 평균 1500만원을 벌었다. 세일즈 스타 1위를 차지한 조정숙 코디(45세)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입이 1400만원에 이른다. 6월엔 약 1800만원을 받았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디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점검 활동 비중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등 유연성이 높다”면서 “이와 함께 코디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매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 본사 차원의 전폭적인 세일즈 지원 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효성중공업·대한전선, 해외 전력망 시장 공략

효성, 차세대 송배전 기술 공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역량 강조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이 글로벌 전력망 시장 확대에 맞춰 차세대 송배전 기술과 해저케이블 사업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력망 전시회 ‘시그레(CIGRE) 2026’에 참가했다.

시그레는 전력 송배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기구로, 격년으로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100여개 회원국과 1200여개 기관, 1만 5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전시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스프링타입 420kV SF6 프리G



대한전선 ‘CIGRE 2026’ 전시장. /대한전선

IS(가스절연개폐장치)를 처음 공개해 탄소 저감 기술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압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스템 ▲202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변압기(SST) ▲생분해성 절연유를 적용한 친환경 변압기 ▲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플랫폼 ‘ARMOUR+’ 등을 선보였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터키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LX판토스, 공대공 유도탄 국내 운송 성공

KAI 의뢰로 고난도 방산물류 수행
14개국 영공 승인 거쳐 해병대 인계

LX판토스가 해외 첨단무기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끝냈다. 25일 LX판토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해병대용 국산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사업에 필요한 공대공 유도탄을 프랑스에서 국내로 수입 운송하는 고난도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의뢰로 수행했다.

유럽의 방산업체 M사에서 출고한 상륙공격헬기 공대공 유도탄은 프랑스 사토루 공항에서 LX판토스 전세기를 통해 인천 공항으로 옮겨졌고, 이후 육상운송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포항 해병대 부대까지

안전하게 인계했다.

LX판토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했다. 또 안전과 보안을 위해 이 전세기에는 해당 화물만 단독 적재했다. 공대공 유도탄은 폭발물 위험등급 Class 1.2E에 해당하는 특수화물인데다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물자임을 고려했다. 방산물자 등 위험물 항공운송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운송 규정과 각국 항공 당국의 안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LX판토스는 이번 운송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중동·아시아 지역 총 14개국의 영공 통과 승인을 거치는 등 까다로운 국제운송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했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 출격

블랙링크·XRT 새로 추가

현대자동차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연식변경 모델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SUV 기반 하이루프 모델을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한편, 프리미엄과 아웃도어 수요를 겨냥한 신규 트림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현대차는 25일 ‘2027 팰리세이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하이루프를 비롯해 프리미엄 디자인의 ‘블랙 링크’, 아웃도어 특화 ‘XRT’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트림별 주요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자금난 숨통 틔다

중기부, 경영안정 대책 강화
소상공인 500억·중소 40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나섰다.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진공 수도권 지원센터에서 중진공, 소진공 관계자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이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협력·입점업체의 거래 및 영업 활동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 회생절차 장기화로 누적된

경영 애로와 자금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신설(소진공)하고 지원대상으로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들은 기존(3.85%)보다 낮은 3.35%(3분기 현재)의 금리로 금액도 기존보다 3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진공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400억원 규모의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기보의 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 대상에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포함하고 기존의 보증 1년 전액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